

백제역사지구 활용 홍보사업 점검

도, 5대 정책 17개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통합관광전략에 2022년까지 7251억 확보

전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맞아 1일부터 12일까지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활용홍보 관련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체적이고 내실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지자체 협력 사업은 5대 정책 17개 사업에 35억원이 투입되는 백제역사지구 활용홍보사업이다.

5대 정책은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 유네스코 권고사항 실행 및 유산 가치 확장, 학술적 이론 축적, 관광활성화 콘텐츠개발, 세계유산의 격에 맞는 홍보 고도화 등으로 백제역사지구를 활용한 홍보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또한 17개 세부추진전략은 백제세계유산 서포터즈제 운영, 추가 잠정목록 등재 추진, 국제학술행사 개최, 디지털을 이용한 매장문화재의 시각화,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및 국내외 관계자 초청 캠프어 확대 등 실질적인 추진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 점검은 계획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세계유산 서포터즈제는 농협, 한진,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퍼레이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사전투표기간 홍보 및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LH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인 하림, 롯데 및 익산 관내 군부대에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제4차 혁명과 궤를 같이해 세계유산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매장문화재가 대부분인 백제 세계유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R, VR콘텐츠를 개발해 지역별로 특성화해 탑재한다는 목표로 5월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 등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펼칠 예정이다.

노화기 문화유산과장은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의 가치 확장을 위해 잠

정목록 확장등재 대상 14개소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캐를 같이하는 통합관광전략에 2022년까지 7,2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대아수목원, 철쭉·금낭화 등 꽃의대향연

이달 중순까지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대아수목원은 4월부터 봄을 알리는 화려한 벚꽃과 이국적 정취를 연출하는 튜립에 이어, 이달초부터 중순까지 철쭉, 금낭화, 꽃잔디 등의 개화가 지속되어 꽃의 대향연이 기대된다.

특히, 대아수목원을 병풍처럼 둘러싼 연초록 숲을 배경으로 철쭉꽃과 금낭화가 붉은색으로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대아수목원의 금낭화자생군락지는

전국 최대규모(7만㎡)를 자랑하며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꽃의 모양이 여자들이 옷에 매다는 주머니를 닮은 금낭화는 곳곳에 식재된 철쭉꽃과 함께 5월 초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아수목원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30만 여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방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주차료 또한 무료다.

/인재용 기자

도, 5월 연휴 기간 식중독 주의 당부

전북도는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나들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봄철 식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식품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식품보관, 섭취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파악됐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주변에서 자생하는 독성식물을 식용나물로 오인해 섭취하거나 미량의 독성 있는 나물을 먹고, 동시에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위생관리 및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하고, 도시락의 경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이하에서 운반하기, 햇빛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나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하고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 후 섭취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도,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11일까지... 희망 160명 · 희망II 1228명 · 내일 214명

전북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저립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I, II와 내일키움통장 대상자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

자산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 I 160명, 희망키움통장 II 1,228명, 내일키움통장 214명을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I과 내일키움통장은 11일까지 4차 모집을 실시(연 10회 분할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 I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 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희망키움통장 II는 11일까지 2차 모집을 실시(연 4회 분할모집)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모집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기준을 완화하는 등 희망키움통장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II는 소득하한

사제, 유지소득 상향조정 등 기준을 완화해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통장별 가입내용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I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하여 3인 가구 기준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평균 720만원을 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3년간 평균 1,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도, 순창 지적재조사사업 점검

전북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순화리 순화남계지구 현장을 2일 방문해 지적기준점 204점에 대한 측량성과 현장점검, 주민의견 청취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순창 순화남계지구는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조사 측량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목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국가기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해 지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감소하며 이에 따라 토지경계 분쟁도 해소된다. /인재용 기자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전북도 직접 심사

17개 종목 94명 심사해 70점 이상 이수증 발급... 객관적 평가로 공정성 확보

전북도는 올 2월부터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무형문화재 전수교육(3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그 기량을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이수심사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까지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전북도에서 직접 심사해 그 기량이 우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이수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

가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수심사를 위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있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수기간 등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자장 등 17개 종목 94명에 대한 이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수심사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마련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현지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항목은 개인종목은 분야별 종목

이해도와 기·예능에 관한 실연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단체종목은 개인의 실연능력과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실연능력이 추가로 평가된다.

이수여부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자로 인정받아 전북도에서 교부하는 이수증을 교부 받게 된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총 52개 종목 87건의 무형문화재가 산재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수심사를 통해 도내 무형문화재의 기반을 육성해 나가고, 전승활용비 인상은 물론, 노후 전수시설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